

3/30(수) 에스라 묵상 12

에스라 7:1-10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 장인 10장까지는 제사장 겸 학자인 지도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 2차 포로 귀환과 더불어 그 이후 말씀을 통한 개혁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에스라

에스라 7장의 사건은 6장의 말씀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1절,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성전 재건의 봉헌식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B.C. 515-514)을 뜻합니다. 그 이후에 약 6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때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제 7년째 해(약 B.C. 458년)였기 때문입니다(8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칠년 다섯째 달이라.”). 즉, 에스라 6장에서 7장은 약 60년 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 사이에 페르시아는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B.C. 486-465)를 했고 에스더 사건도 있었던 것입니다.

연대	페르시아의 왕들	사건
B.C. 522-486	다리오왕	제 2성전 완공,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
B.C. 486-459	아하수에로왕	에스더 사건
B.C. 458-	아닥사스다왕	제 2차 포로 귀환(에스라를 중심으로)
B.C. 444-	아닥사스다왕	제 3차 포로 귀환(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본문은 제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5절, “아비수아의 십삼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십사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십오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십육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첫째로 에스라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본문 1절에 에스라의 아버지로 기록된 스라야는 증조부나 또는 고조부가 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스라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B.C. 588년경 립나에서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 죽임을 당한 대제사장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왕하 25:18-21,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또다른 증거가 역대상 6:14절에 나옵니다(대상 6:14,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이처럼 당시 히브리인들이 족보를 기록할 때 명단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좀 전에 살펴본대로 바벨론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지만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8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는 비록 바벨론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장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부터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에스라는 율법 연구에만 몰두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실행하는 자였습니다. 셋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입니다(6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성경은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약 1,750명의 성인 남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7절, "아닥사스다 왕 칠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는 에스라가 포로지에서 이방 왕에게까지 인정을 받을 정도로 자신의 일과 선한 삶으로 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12절은 그를 가리켜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우리는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읽고, 듣고, 또 연구하는 자로 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준행하고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 뿐만 아니라 요셉과 다니엘도 그랬고 제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 이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의 도움으로 무사히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느 2:8,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또, 에스라는 포로 있는 이방 땅에서 조차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가 장차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스라가 포로기 때에 자신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그가 쓰임받을 준비를 갖춘 인물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북한을 위한 기도:** 북한 땅에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영유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E국 이바나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